



国内消息

發電 脱石油化 내년부터 本格推進 91年, 原子力 40.5%

發電燃料의 脱石油化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政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39基의 石油發電設備中 11基를 유연탄 發電所로 개조해 나가고 油類發電所의 신규건설을 전면 억제키로하는 한편, 脱石油發電燃料의 장기확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60年代初 무연탄중심에서 70年代以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石油發電의존도는 올해 74.2%를 피크로 하여 86年 35.2%, 91年 18.5%등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5月 11日동자부에 따르면 石油發電시설은 2차의 오일쇼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9年 5백65만 7천kW(전체 70.3%)에서 80年 6백89만 7천kW(73.4%), 81年 7백41만 9천kW(74.2%) 등으로 매년 증가현상을 보였으나 내년부터 발전연료의 탈석유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기존 39基의 석유발전설비중 11基(湖南1·2, 여수1·2, 울산4·5·6, 평택1·2·3·4)를 유연탄 발전소로 개조하기 위해 이미 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건설중인 3개발전소(71만kW)를 제위한 신규 석유발전소 건설을 전면 억제키로 했다. 한편 천연가스도입을 적극 추진, 평택 화력은 85年 9月부터 1백40만톤씩, 인천 화력은 88年말부터 2백55만톤씩 각각 공급, 2개 석유발전소를 천연가스발전소로 개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政府는 또 90年代 발전연료를 原子力 중

심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하고 올해 58만 7천kW의 원자력발전비중(전체 5.9%)을 86년에는 4백71만 6천kW(26.8%), 91년에는 1천 1백 1만 6천kW(40.5%)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력은 올해 1백20만 2천kW(전체 12.2%)에서 91년에 3백66만 5천kW(13.5%)로, 석탄은 75만kW(7.6%)에서 4백97만kW로 각각 늘려 발전연료를 다원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 91년까지의 發電用 소요연료는 ▲ 석유 5천 4백만kl, ▲ 무연탄 2천55만톤, ▲ 유연탄 3천 9백90만톤, ▲ 가스 1천 4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장기확보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代替 發電資源으로 ▲ 석탄이용기술, ▲ 태양에너지, ▲ 풍력, ▲ 地熱, ▲ 폐기물소각發電 등의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91년까지 90만KW級 原電 1基 추가

政府는 脱石油電源개발방침에 따라 原子力發電所 1基를 추가, 오는 91년까지 原電 4基를 建設키로 했다.

동자부에 따르면 原電 1基(90만kW급)를 추가, 11·12·13·14號基 등 原電 4基를 오는 91년까지 建設키로 확정했다.

現在 国内 原電은 稼動中인 古里原子力의 8基가 建設中이며, 11·12號基가 금년

10월에 발주될 예정으로 있는데 추가 1기 건설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1~14號基까지 4基中 2基가 금년에 동시 발주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2基의 동시 발주 가능성은 原電의 건설기간이 평균 1백8개월(9年)로 계획기간인 90年말까지 준공해야 하는 점과 早期 및 동시발주시의 경제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發電設備 85年 완전國産化 韓國重工業 昌原工場 내년도 정상稼動

韓國重工業의 昌原工場이 내년상반기부터 정상가동, 85年까지 發電設備가 완전 國産化된다.

韓國重工業은 발전설비의 해외 의존도를 앞당겨 줄이고 산업기계설비의 수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상반기부터 昌原공장을 정상가동 시키기로 했다.

5月 19日 韓重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美國의 번스앤드르회사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운영정상화방안에 따르면 現在 설치공사중인 昌原공장의 단조 및 주단조공장을 연내로 매듭, 내년초부터 정상가동하며 軍浦공장의 생산공정을 재배치, 중기계공장·발전설비·보조기생산을 위한 공정을 갖추는 한편 空調제품생산공정을 통합조정키로 했다. 특히 昌原공장의 기계·제관·보일러 및 단·주조공장은 發電설비기계제작에 우선을 두며 중장비공장은 대량생산공정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昌原공장은 또 82年부터 완전가동에 대비, 디프 홀(Deep Hole) 및 멀티 스피들 드릴링(Multi Spindle Drilling) 기계설비를 비롯 터빈날개(터빈 브레이드), 터빈熱 충격시험설비 등을 추가하는 한편, 木型공장·산소제조공장은 취소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편 韓重은 오는 85년부터 주요 발전설비 및 산업기계설비를 1백% 국산화하기로

했는데, ▲ 原子炉(NSSS), ▲ 火力보일러 ▲ 水力터빈제너레이터(발전기)는 오는 85年까지, ▲ 原子力터빈제너레이터는 86年까지 각각 단전 국산화하기로 했다.

韓重은 이에 앞서 석유화학설비·시멘트설비는 금년에, 제철·제강설비 및 제지·펄프기체는 83년에 각각 완전 국산화한다. 韓重은 이밖에도 생산시설 및 기술도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발전설비규격을 일원화하고 발전소건설공사업무 및 기존발전소 보수공단업무를 흡수할 방침이다.

古里原子力發電所 부근 放射線 측정

韓國에너지연구소는 原子力利用施設의 확산에 따른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국토전역에 대한 自然放射線량을 측정,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사업으로 특정지역인 古里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80km 범위내 지역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환경방사선관리와 방사선사고의 조기탐지, 이에 대한 최선책의 강구, 방사선피폭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해소 등의 목적 외에도 核燃料資源의 부존가능성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북 일대에 대해 49개 측정지점을 대상으로 측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경남·북 일대의 자연공간 방사선 양의 평균은 시간당 최저 14.4 마이크로뢴트겐에서 최고 18.7마이크로뢴트겐의 범위로 평균 16.3마이크로뢴트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평분포는 馬山지역 및 龜浦, 佛國寺, 九龍浦를 잇는 지역이 비교적 방사선 양이 많았고 경산·청도지역 및 三浪津·金海지역이 적었다.

우리나라 電源개발 장기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原子力發電所를 비롯하여 대단위 原子力 利用시설의 建設活動 확대에 따라 국토전역에 대한 자연방사선 양의 측정, 조사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科技審議會 82年度 綜合연구사업 議決 에너지資源開發 등에 重点

제 4 차 科學技術審議會는 5 月 26 日 82 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이 종합심의회는 이날 9 개 出捐 연구기관과 23 개 각부처산하 국공립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82년도 연구개발사업, ▲ 國家연구개발사업(국책연구과제사업)과 관련되는 과제, ▲ 관련산업계에 파급효과가 높고 수출산업에 기여도가 큰 과제, ▲ 해외에 관련기술이 없어 기술도입이 곤란한 우리 고유의 연구과제, ▲ 중소기업 공통애로 기술개발 과제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의결된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안에 따르면 82~86년 국책연구개발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 산업기술개발, 교통통신시스템 개발 등 사회복지기술, 공해방지 및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기본 시책은 복지사회건설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핵심기술개발의 중점 추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유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운영 효율화 촉진, 기초과학진흥 및 연구인력 양성확대,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 및 연구분위기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技術用役産業 적극育成 플랜트輸出 촉진토록

政府는 플랜트의 國産化와 이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技術用役産業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처에 따르면 플랜트 국산화를 위해 플랜트엔지니어링업체를 특성화하여 중점 육성하고 工程의 자체개발부터 기본설계와 프로젝트관리까지 일괄수행할 수 있는

용역회사도 육성할 계획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기술용역업체는 工場建設 용역업체가 15개 있으며 이들 업체의 80년도 受注실적은 국내 4 백억원, 해외 1 千 8 百65만달러에 달했고 종합건설용역업체는 2 개로 80년도 수주실적은 국내 14억 6 千만 원이었다.

또한 전문기술용역업체는 1 百75개로 지난해 국내에서는 8 百35억 8 千만원, 국외 6 千 9 百61만달러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과기처는 특히 工場建設용역회사를 소수 정예화하고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을 고쳐 국내 기술용역회사의 주계약자 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기술용역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용역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해외진출의 촉진과 관련, 선진국의 저명엔지니어링회사와의 기술제휴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주식회사에 의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능력수준은 詳細設計 및 제품생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구매조달, 공사감리기술은 부분적으로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

工程·노하우 및 기본설계·試運轉·성능보장관리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長期電源開發計劃模型 實用化 推進

韓電 電源計劃部는 장기전원개발계획模型을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지난 3 月 3 日 導入하여, 이의 實用化 作業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전원개발계획模型은 고도로 발달된 이론에 입각한 계획수립技法으로서 手算으로는 불가능한 여러 制約變數 및 條件을 고려한 최적 전원개발을 가능케 하며, 컴퓨터에 의해 계획수립을 함으로써 수립기간의 단축

및 人員절감의 效果를 가져온다.

이번에 도입된 模型(WASP-Ⅲ)은 80年11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確率「시뮬레이션」과 動的計劃法을 응용개발한 가장 진보된 것으로서 막대한 投資費가 소요되는 國家的 장기전원개발사업의 最適化, 適正化에 기여하게 된다.

韓國技術開發(株) 현판식

韓國技術開發주식회사(KTDC 사장 金立三)는 5月 25日 개업기념식 및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4月 28日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준비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날 개업기념식 및 현판식을 가짐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전담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西獨, 韓國의 原電建設 참가를 희망

申秉鉉부총리는 6月 11日 오토 람스도르프 西獨經濟省 長官의 예방을 받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韓國의 5차 5개년계획에 西獨의 자본과 技術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람스도르프 長官은 韓國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技術과 安全度가 높은 西獨의 KW原子力發電所 建設會社가 韓國의 原子力發電所 建設事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申부총리에게 요청했다.

大宇重工業(株) CPP國産化 성공 美 에코다인社와 技術제휴

原子力發電所에 설치되는 CPP(復水脫鹽 플랜트)가 大宇重工業에 의해 開發, 國産化가 이룩됐다.

6月 15日 관련업계에 따르면 大宇는 原子力發電所를 비롯한 發電所建設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水處理設備인 CPP를 美國의 世界的인 메이커인 에코다인社와 技術제휴

를 맺고 자체개발에 나서 國內제작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同社는 지난해 1월에 에코다인社로부터 技術을 도입, 國內 原子力發電所 1號機의 CPP설비공사를 시작, 6月중에 완공케 되었으며 지난 3月 5, 6號機 原子力發電所의 CPP설비용기자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설비제작에 나섰다.

CPP설비는 原子力 및 대용량의 火力發電所 터빈응축수를 냉각하여 특수한 이온교환방식으로 염분을 제거한 후 보일러에 재순환시킴으로써 발전효율을 높이고 순환계통의 부식을 방지, 발전소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최신 특허기술의 水處理 플랜드이다.

同社는 에코다인社와의 技術제휴로 이 특허기술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國內 發電所用 CPP설비의 國內제작은 물론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를 제작,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同社는 지난 77년부터 폐수 및 수처리를 위해 日本의 구리다 워터와 技術제휴, 浦鐵을 비롯, 溫山銅製鍊, 울산火力, 호남정유 등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수처리분야를 대폭확대, 본격적인 수주에 나서기로 했다.



當會議 事務局長에
朴炳鎬氏 任命

當會議는 그동안 空席이었던 事務局長에 朴炳鎬(49)氏를 5月 1日자로 任命하였다.

朴事務局長은 韓國電力(株) 外資部長, 大宇開發(株) 理事와 監事를 歷任하였다.